



2010 Summer Vol.06

www.obos.or.kr



SPECIAL STORY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창립 22주년 “New 비전 & 미션 선포”

현장속으로

자살예방 명동거리 캠페인

생명을 살리는 씨앗

조혈모세포 기증





한마음한몸운동본부, 22살의 청년이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전례력에 따라 전통적으로 삼위일체대축일 다음 주일(올해는 6월 6일)을 '그리스도의 성체성혈대축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 축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 만찬을 통해 제정하신 성체성사를 특별히 기념하고 그 신비를 묵상하는 날입니다. 저희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이 성체성사의 정신에 따라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자故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설립하신 취지에 따라 올해부터 창립기념일을 '그리스도의 성체성혈대축일'로 옮겨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세상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마주보며 국제협력, 생명운동, 국내 사회복지 지원사업을 통해 사랑 나눔을 실천해온 저희 본부가 이제 스물두 살의 청년이 되었습니다.

청년들에게는 꿈, 이상, 세상을 정화시킬 순수함이 있습니다. 22주년을 맞이하는 저희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이제 청년들과 같은 열정으로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갖고 성체성사의 정신에 따라 나눔을 실천하고 생명을 살리는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고자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한마음한몸운동이 온 세상에 사랑 나눔을 실천하는 도구가 되길 희망합니다.

항상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재)한마음한몸운동본부 본부장 김용태(요셉) 신부

청년과 같은 열정으로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갖고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표지이야기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창립 22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비전과 미션을 선포하고 최근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있는 청소년들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명동거리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생명의 존엄성을 깨닫고, 자살예방운동에 동참할 것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www.obos.or.kr
2010 summer Vol.06

- 02 여는 글**
 한마음한몸운동본부, 22살의 청년이 되었습니다
- 04 Special Story 01**
 본부 창립 22주년 기념식
- 06 Special Story 02**
 New 비전 & 미션 선포
- 08 현장속으로**
 자살예방 명동거리 캠페인
- 10 생명을 살리는 씨앗 01**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모집활동 & 기증자 설문조사
- 12 생명을 살리는 씨앗 02**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자모집 봉사활동 수기 _김동현
 조혈모세포 기증자 수기 _김정란
- 14 월드 ON Air**
 진흙쿠키의 나라 아이티
- 16 공감, 나누는 세상**
 배우 최은희 씨 장기기증 서약
- 18 고마워요 사랑해요**
 심장이 아픈 몽골아기 진궁 이야기
- 20 OBOS NEWS**



한마음한몸 발행일 2010년 6월 30일 통권 제 6호 **발행인** 김용태
발행처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서울시 중구 명동길 62 (구. 명동2가 1) 가톨릭회관 413호
편집디자인 굿모닝컴 **글·사진** 기획홍보팀 **출력·인쇄** 프로아트
주소변경 및 문의 후원관리팀 | 02.774.3488 | obos@catholic.or.kr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서 발행하는 계간지 "한마음한몸"은 후원자들에게 무료로 배포됩니다. 한마음한몸의 내용은 인터넷 www.obos.or.kr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소식지의 저작권은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 있습니다.
 Copyright©ONE BODY ONE SPIRIT. all rights reserved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창립 22주년 기념미사 및 기념식

2010년 9월 6일 오전 11시 장소: 가톨릭회관 1층



1

본부 창립 22주년 기념식 '성체성혈대축일'을 본부 창립기념일로!

Special Story 01

1988년 온통 88올림픽의 열기로 들떠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성체성사의 정신에 따라 생명을 살리는 세상을 이루고자故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설립하신 한마음한몸운동본부가 창립 22돌을 맞았다. 세상의 소외된 사람들을 마주보며 국제협력, 생명나눔, 국내사회복지 지원사업을 전개하며 생명사랑을 실천해온 본부가 어느덧 22살의 의젓한 청년이 된 것이다.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개최된 창립기념식에서 본부장 김용태 신부는 개회인사말씀을 통해 성체성사의 생명나눔정신이 국민 모두를 살리는 정신으로 이어져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현실에서 이뤄지도록 함께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였다. 특히 올해부터 '그리스도의 성체성혈대축일'을 본부의 창립기념일로 정하고 새로운 비전(미래상)과 미션(사명)을 제정, 선포함으로써 본부의 존재가치와 그 뜻을 교회 내외에 널리 알렸다.

이어진 사무국장 민경일 신부의 **아이티 재난현장 방문보고**는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 지진에 따른 잔해들이 치워지지 않고 그대로 쓰레기더미처럼 남아있는 모습과 천막촌에서 사는 난민들의 고된 삶이 담긴 가슴 아픈 현장 사진을 보며 함께 가슴으로 우는 시간이 되었다.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장을 맡고 있기도 한 민경일 신부의 **자살예방센터** 소개에서는, 날로 심각해져가는 한국의 자살현황에 대한 문제를 함께 인식하고 문광부의 지원을 받아 앞으로 펼쳐갈 센터의 사업방향과 향후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내용을 보고하며 교회를 중심으로 생명존중문화 조성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백혈병, 난치병 환아들을 지원해온 본부의 환아지원사업 동영상을 상영하여 이 땅에 어린 생명이 바람 앞에 촛불처럼 스러져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아름다운 모습들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자리였다.

이어진 순서로는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의 홍보대사인 양미경(엘리사벳)씨를 비롯하여 발전에 큰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뜻 깊은 시간이 있었다. 감사패를 받은 수상자들은 한결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었고, 더 낮아져서 본부의 아름다운 생명니눔 사업에 열심히 봉사할 것을 약속했다.



기념식에 앞서 그리스도의 성체성혈대축일 미사를 겸하여 드려진 **한마음한몸운동본부 22주년 창립기념미사**에서 본부장 김용태 신부는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는 요지의 강론을 통해 오병이어의 기적이 빵이 커진 기적이든 광주리에서 계속 나오는 기적이든 그런 외적, 물리적 일회적인 기적이 아니라 현대를 사는 우리 이웃들 가운데 소외받은 자들도 우리의 빵을 “함께 배불리 먹고 남는” 나눔의 기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빵이 커진 기적이 외적, 물리적 일회적인 기적이 아니라 현대를 사는 우리 이웃들 가운데 소외받은 자들도 우리의 빵을 “함께 배불리 먹고 남는” 나눔의 기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헌혈운동과 각막기증, 장기기증, 조혈모세포 기증 등 **생명운동**을 전개하며 ‘나눔의 기적’ 중심에 서있는 한마음한몸운동본부가 이제는 삶의 희망을 잃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하려는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부축해줄 것을 당부했다.⊕

1. 한마음한몸운동본부 22주년 창립기념미사.
2. 양미경 홍보대사와 감사패를 받은 수상자들의 식사 전 기념촬영.
3. 본부장 김용태 신부의 성체성사 장면.



New 비전 & 미션 선포

Special Story 02

그리스도의 뜻이 이 땅에 건강하고 튼튼한 뿌리를 내리도록...

1987년 성체대회 준비 기획위원회에서 발의된 한마음한몸운동은 이듬해인 1988년 추계 주교단 총회에서 전담체제를 갖추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1989년 제 44차 서울세계성체대회 장엄미사 때 한마음한몸운동 추진실적을 봉헌한 후 설립취지를 '성체성사의 정신을 삶으로 구현하는 것'으로 삼아왔다. 그래서 창립 22주년을 맞이하는 올해부터 그 취지를 더욱 확고히 하는 의미로 '그리스도의 성체성혈대축일'을 본부의 창립기념일로 삼게 되었다.

이에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소외된 사람들을 마주보며 생명사랑을 실천해 온 22년의 의미를 담은 엠블럼 '마주보는 사랑'을 제작하였고, 한걸음 더 나아가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고,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본부의 새로운 비전(미래상)과 미션(사명)을 공식 선포하였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새로운 비전과 미션을 바탕으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 그리스도의 뜻이 이 땅에 건강하고 튼튼한 뿌리를 내리도록 할 것이다.

⊕ 비전 (미래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립하신 성체성사의 정신에 따라 나눔을 실천하고 생명을 살리는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고자 한다.

⊕ 미션 (사명)

1. 고통 받고 소외된 지구촌 모든 이들의 인권을 존중하며 빈곤을 없애고 사회정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일합니다.
2. 생명의 존엄성을 수호하며 생명나눔문화를 활성화하여 생명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일합니다.
3. 나눔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림으로써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일합니다.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고,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본부의 새로운 비전(미래상)과 미션(사명)을 공식 선포하였다.



수고해주신 모든 분을 대신하여...

한마음한몸운동본부가 22살의 건강한 청년으로 자라서 세상의 소외된 이들을 미주하며 생명나눔운동을 전개해 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겠지만, 특별히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몇몇 분들께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을 대신하여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1996년 법인설립 당시부터 본부의 감사로 수고해주신 노병해(루까)님. 노령에도 장기기증 신청자 프로그램 입력봉사를 11년간 맡아 오신 김두영(요한보스코)님. 한미헌금위원을 역임하셨고 본부 행사는 꼭 참석하여 도움을 주시며 특히 100원 모으기 홍보봉사를 해주신 김재규(세바스티아노)님. 그리고 자원봉사 1세대로 명동 본당 레지오팀으로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우편물 발송, 반송 처리의 행정봉사를 담당해주셨던 세 분 정경묵(루시아)님, 김동길(안젤라)님, 최영순(아네스)님이 감사패를 받으신 영예의 수상자들이다.

이밖에도 특별한 수상자가 한 분 있었는데,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의 홍보대사인 양미경(엘리사벳)님이 그 주인공이다. 이 날도 자살예방센터에서 주관한 '청소년 자살예방 명동거리 캠페인'에서 봉사자 200여 명과 함께 1시간 가까이 명동거리를 행진하며 서명운동에 앞장서서 참여해주셨다. ⊕

1. 새로운 비전과 미션을 설명하고 있는 본부장 김용태 신부.
2. 감사패를 받고있는 양미경 씨.
3. 이날 감사패를 받은 봉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현장속으로 _ 자살예방 명동거리 캠페인

생명, 포기하지 말고 지켜주세요~ '생명지키기 7대 선언' 낭독하고, 명동행진

어떤 시인은 인간의 아픈 마음의 상처를 '폴잎에도 상처가 있다'라는 시를 통해 표현했다. 시인의 입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네 인생은 많은 아픈 마음의 상처들이 있고 그 상처가 아물 때면 또다시 서로 상처를 입히고 입으며 살아간다. 안타깝다. 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 상처를 견디지 못해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장 민경일 신부가 밝힌 한국의 자살현황에서 보면 최근 20년간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은 15명에서 26명으로, 자살로 인한 사망자수는 7천명에서 1만2천8백여 명으로 증가했고, 사망순위 변화를 보

면 자살은 10위에 있었으나 현재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에 이어 4위에 오르는 등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날로 심각해져만 가는 '자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먼저 교회를 중심으로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자살예방교육을 폭넓게 확대하며, 특별히 자살 고위험군의 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 개입하기 위해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가 향후 모든 사업방향을 설정한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나아가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창립 22주년을 기념하는 미사와 기념식을 마친 후에 명동성당 앞에서 생명지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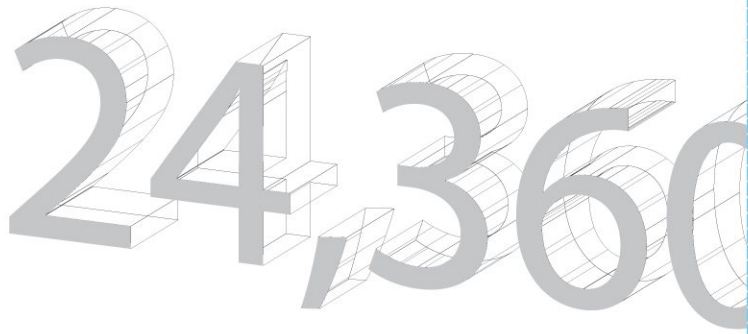
기 7대 선언문을 낭독하고 명동 예술극장을 지나 명동 CGV까지의 거리를 행진하며(사진 1)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활동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사진 4) 오후 1시부터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홍보대사 양미경(엘리사벳)씨와 본부 직원, 자원봉사자 200여 명이 벌인 명동거리 캠페인은 자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인식을 개선시키고, 한편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며 청소년 자살예방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를 위해 생명지킴이 카드를 배포하여(사진 5) 자살예방에 동참토록 하면서, 커다란 생명나무 현수막에 시민들이 서명한 사랑나뭇잎을 붙이도록 하여(사진 2,3) 생명존중과 자살에 대한 인식을 바꾸도록 유도하였다.

청소년 자살예방 명동거리 캠페인에 참여한 봉사자들의 표정은 생명의 존엄성을 알리기 위해 매우 진지했지만 밝은 모습이었고, 이 모습을 지켜보는 시민들은 입을 모아 행사

의 취지가 매우 훌륭하다고 칭찬해주며 의미 있는 이 운동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나타내주었다.

본부는 15세~19세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10만 명당 8.2명으로 교통사고(12.3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사망원인이 될 만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지난 3월 청소년 자살예방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8년간 24,360명의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자 등록

120명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사해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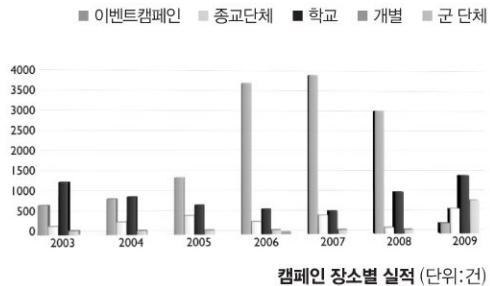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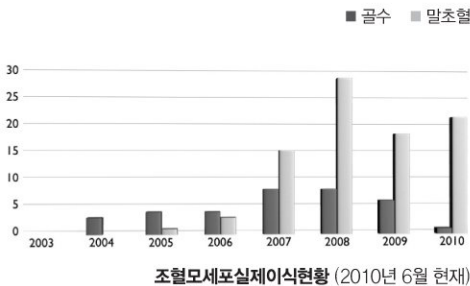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2010년 6월 현재 24,360명의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자를 등록하는 성과를 이루어 냈으며, 그 중 조직적합성항원이 맞는 120명이 실제 조혈모세포를 기증하여 120명의 환우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사해 주었다.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총 8년 동안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자모집기관으로 캠페인을 벌여온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2010년 6월 현재 24,360명의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자를 등록하는 성과를 이루어 냈으며, 그 중 조직적합성항원이 맞는 120명이 실제 조혈모세포를 기증하여 120명의 환우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사해 주었다. 기증방법 별로 보면 골수 조혈모세포 기증자 34명, 말초혈 조혈모세포 기증자 86명으로 초창기에는 조혈모세포 양이 적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골수조혈모세포를 채취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2007년부터는 마취가 필요 없이 현혈실에서 진행되는 말초혈 조혈모세포 이식방법으로 이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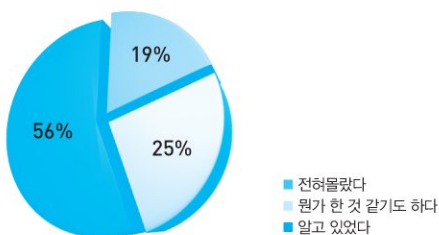
본부에서 진행되는 캠페인 장소별 실적을 보면 대학교에서 진행되는 행사가 가장 많았으며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국토대장정행사로 인한 이벤트성 행사가 많았다.

2009년부터는 이벤트성 행사 시 조혈모세포기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서 종교단체행사나 개별방문에 많이 치중하여 동의율을 높이는데 노력하였으며 한마음한몸 장기 기증센터의 설립으로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가 많아져 조혈모세포기증자 동의율을 높이는데 큰 일조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모집활동 및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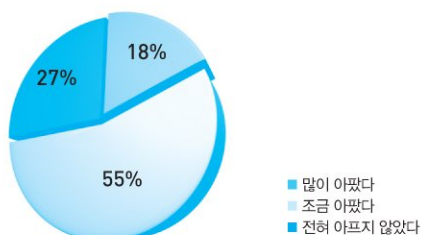


●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 기증 희망한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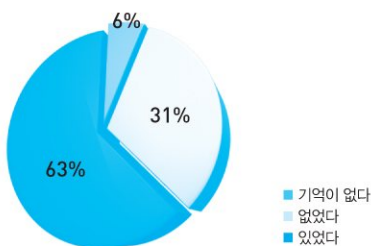
어느 기관에 기증을 희망했는지 전혀 모르는 이들이 전체의 19%로 모집기관인 본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 이식 진행시 통증 정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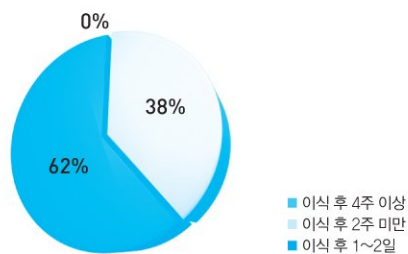
주로 말초혈 조혈모세포를 이식하신 분으로 말초혈관 주사부위를 통증으로 호소하는 기증자가 많았으며 거의 대부분의 기증자마다 통증부위가 달랐으며 뼈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 이식조정기관에서 모집등록기관이 한마음한몸운동본부란 소개가 있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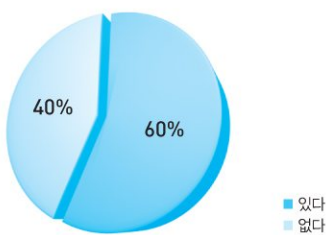
이식조정기관에서 기증희망자에게 조혈모세포 일치를 알리고 기증의사를 확인할 때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 대한 소개가 철저히 이루어져 기증희망자들로 하여금 당혹감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이식 후 통증완화 시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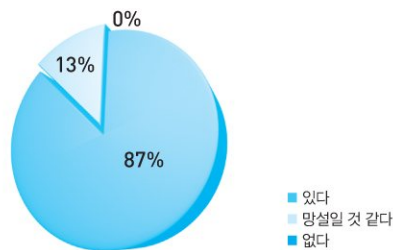
통증완화시기는 대부분 이식 후 1-2일이면 회복되었고 2주안에 모든 통증은 사라졌다. 조혈모세포가 완전하게 정상치에 도달되는 4주까지는 안정된 상태를 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이식 조정 진행시 불편한 점은?



이식 조정시 기증자 60% 이상이 불편한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증자 거주지와 이식병원의 거리가 먼 경우에는 멀리까지 와서 기증을 하게 되는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조혈모세포촉진주사(CSF)를 여러 번 맞는 번거로움이나 절차가 복잡함에 대한 호소도 많았다.

● 기증 후 다른 사람에게 조혈모세포에 대한 홍보나 권유를 할 수 있나요?



기증자중 거의 90%가 조혈모세포에 대한 홍보나 권유를 할 수 있다고 대답했으나 나머지 10% 기증자까지도 홍보를 할 수 있다고 대답할 수 있도록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모집기관을 비롯한 이식조정기관등 관계된 모든 기관이나 관계된 분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 이 자료는 기증자 가운데 20명을 무작위로 표본 추출하여 조사한 자료이며, 실제 조혈모세포 기증자들의 건강상 이상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하였다.

우리의 작은 행동이 한 생명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글 ● 경원대학교 기톨릭학생회 김동현



처음에는 정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5월 중순이라 학교 내에서 이런저런 행사가 참 많아서 자리 잡기도 힘든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부스를 열지 못하면 어떡하나, 봉사

활동 하는 날 동아리 사람들이 수업을 듣거나 바빠서 참가 못해주면 어떡하나,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리면 어떡하나, 우리가 잘 할 수 있을까 등등 정말 봉사활동 전 날에는 잠조차 잘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이런 저의 걱정을 뺀! 없애버릴 정도로 좋았습니다.

부스를 열고 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쉬는 시간이나 공강 시간마다 들리서 도와주는 마티티안들에게 정말 고맙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끼리 서로 이야기 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며, 무엇이 생명나눔인지, 생명나눔에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 알게 되었고,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어

디에선가 아파 신음하고 있을 한 생명에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힘든 것도 있고 모두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설명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 하나하나에게 진심을 담아서 설명을 하였고, 감성에도 호소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골수라는 단어만 듣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꼈지만, 조혈모세포이식방법에 대한 자세하고 정확한 설명을 듣고서는 생명나눔운동이라는 생각으로 기증의사를 밝혀 주었고 또한 현재 병실에서 투병중에 있는 백혈병이나 혈액암 환우들에게 우리가 조금 힘들고 불편하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자는 호소에도 많이 호응해 주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는 도중 우리 근처에 부스를 열고 행사를 하던 팀에서 좋은 일 한다며 음료수 한 박스를 가져다 주셨을 때 정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마움과,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고, 다 같이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 속에 하나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행사 종료시간이 되어 정리를 할 때 몇 명이나 기증희망자를 모았는지 물어보니 177명이라고 대답해 주시면서, 올해 최대 인원이라고 대단하다고 말씀해 주실 때 정말 뿌듯함을 느꼈고, 아 우리가 잘 해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진심을 담아 이룬 이 결과가,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곳에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자 모집 봉사활동 후기

사랑을 나눌 건강이 있다는 것, 그것은 큰 축복입니다!

글 ● 조혈모세포 기증자 김정란

지난겨울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이라는 이름도 낯선 곳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몇 년 전 골수기증의사가 아직도 변함이 없는지... 수혜자가 나타났다는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물론 한 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전화를 주신 간호사님께서 건강상에 별 문제가 없는지, 앞으로의 일정 등을 간단히 물으시고는 혈액검사를 비롯한 건강검진을 받은 다음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건강한 상태이어야 기증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며칠 후 실시한 검사에서 혈액검사와 심전도 검사 등 모든 것이 정상이었지만 신장 166cm, 체중 53kg이 조금 염려스럽다는 말에 저는 체중을 늘리기 위해 그 날부터 헬스도 중단하고 야식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그 덕분인지 기증 날까지 3kg의 체중이 늘었고 지금은 또 다시 뱃살과의 전쟁 중입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기증 날이 정해졌습니다. 저의 기증방법은 혈액을 통한 기증이라 기증 사흘 전부터 촉진제(?)를 맞고 4월 5일 입원하고 4월 6일 기증을 하였습니다. 장시간 헌혈에 따른 손과 발 저림이 있긴 했지만, 생각했던 것 보다 아프거나 큰 불편은 없었습니다. 기증 후 며칠간은 현기증이 나고 기운이 없긴 했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이 새 생명을 얻는 일인데, 이 정도쯤의 불편함은 불편함이라고도 할 수 없는 일이지요.

기증하고 두 달이 지난 지금은 건강은 물론 또 다른 나를 얻었고, 마흔이 넘어서 건강을 걱정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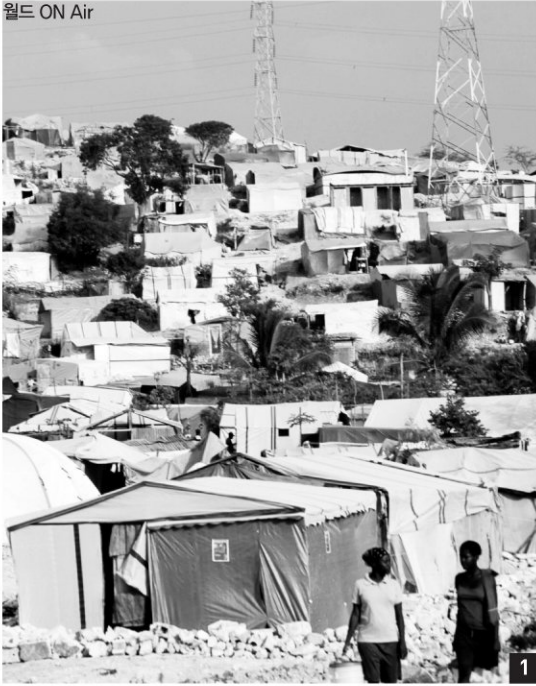


보약이라도 먹어야할 나이에 쓸데없는 짓을 한다며 염려하던 가족들, 직장동료들, 친구들 그 외 여러 분들께 용기가 대단하다며 좋은 일 했다고 축하스러운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그리 어렵거나 힘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 기증을 통해서 새삼 느끼게 되었고, 나에게 이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이라 여겨졌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염려 반, 격려 반으로 보내주신 모든 분들의 기도를 수혜자의 건강과 쾌유를 위해 봉헌합니다.

언제가 될 진 모르겠지만 제 생명이 다 하는 날 또 다른 사랑의 실천을 조용히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증희망자와 환자의 다리역할을 해준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모집기관이며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은 조혈모세포 이식조정기관입니다.



진흙쿠기의 나라 아이티

글 ● 국제협력부 차장 김대민

빠져나올 틈도 없이 순식간에 무너져버린 주택과 건물, 원래 아름다웠던 모습을 상상할 수도 없게 무너져 버린 포르토프랭스 주교좌성당, 임시로 만든 신학교에서 사제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며 기도하고 있던 신학생들,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아이티의 사람들…. 과연 이들에게도 내일이 있을까? 이들에게 희망을 안겨줄 사람은 누구인가?

2010년 1월 12일, 아이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날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가난하지만 가족끼리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던 아이티 사람들은 한 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말았다. “생지옥”, “초토화”라는 말 밖에는 달리 표현할 수가 없었다. 진도 7.0 규모의 대지진이 카리브해의 아름다운 섬나라 아이티를 강타했다.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인 지난 4월 말 장기재건 사업을 위하여 고통과 상처의 땅 아이티 현장을 찾아갔다. 중남미 카리브해 연안의 가난하지만 아름다운 섬나라로만 알고 있던 아이티의 첫 인상은 말 그대로 “참혹”이었다. 서울에서 출발하여 약 30시간 만에 도착한 아이티 포르토프랭스 공항, 지진으로 붕괴되어 인근의 창고로 쓰던 곳을 개조하여 임시로 쓰고 있는 공항 모습은 흡사 오래된 영화 속이나 나오는 시골 기차역만도 못했다. 입국 심사대를 거쳐 어렵사리 가지고 온 짐을 찾아 공항을 빠져 나오니 공항 밖의 모습은 더 가관이었다. 한 푼이라도 벌기 위해 우리 팀의 짐을 들어주겠다고 거의 빼앗다시피 하는 사람, 전화를 걸어주겠다고 하는 사람, 차량이 있는냐고 묻고 무조건 짐을 들고 자기 차에 싣고

시동을 거는 사람,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정말 치열한 삶의 전쟁터였다.

정신없던 공항을 빠져 나와 아이티 카리타스에서 제공해준 차량에 몸을 싣고 포르토프랭스의 델마(Delmas) 지역으로 향하는 길에서 보았던 도시는 3개월 전 지진이 났을 당시의 참혹한 모습을 보는 듯했다. 3개월이나 지났건만… 휴~하고 한숨이 절로 나온다.

외신을 통해 TV와 신문으로 보았던 지진 현장의 참혹한 모습 그대로였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한 순간에 가족을 잃어 울부짖고, 적지만 열심히 일하여 모은 전 재산을 잃어버려 망연자실하던 아이티 사람들의 모습만 바뀌었을 뿐 수직으로 그대로 주저앉아 버린 건물, 그 무너진 건물에서 나온 잔해들로 뒤덮여 흡사 도시 전체가 쓰레기장이 되어 버린 것 같은 모든 것이 3개월 전 TV와 신문을 통해 보았던 모습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간혹 맨손이나 해머를 이용하여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지만 체계적으로 중장비를 이용하여 무너진 건물 잔해를 정

1. 포르투프랑스 델마 33번지 임시캠프 현장
2. 지진 잔해를 치우고 있는 아이티 어린이
3. 지진으로 무너진 포르투프랑스 교구 신학교 건물

리하는 모습은 찾아 볼 수가 없었다. 또한 지진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인 사람을 가리지 않고 피해를 입혔지만 지진 후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해진 모습이었다. 포르투프랑스에서 서쪽으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레오간 시로 가는 길에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위치한 두 곳의 난민 캠프에서 극심한 빈부의 격차를 느낄 수 있었다. 한쪽은 구호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비교적 제대로 격식을 갖춘 천막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다른 한쪽은 구호단체의 도움을 받지 못하여 잡초가 무성한 풀밭에 나뭇가지와 형걸, 판자로 만들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허름한 천막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정말 목숨만 붙어 있을 뿐이지 인간다운 삶을 산다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주어진 모든 일정을 마치고 비행기를 타는 순간 그 동안 보았던 아이티의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빠져나올 틈도 없이 순식간에 무너져버린 주택과 건물, 원래 아름다웠던 모습을 상상할 수



도 없게 무너져 버린 포르투프랑스 주교좌성당, 임시로 만든 신학교에서 사제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며 기도하고 있던 신학생들,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아이티의 사람들...

과연 이들에게 내일이 있을까? 이들에게 희망을 안겨줄 사람은 누구인가? 많은 의문이 서울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희망은 있을 것이다. 희망을 이야기하기에 너무 빠른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생사의 갈림길에서 살아남은 아이티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우리들”이 있는 한 희망은 분명 존재할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명의 끈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아이티 사람들에게 바로 ‘우리’가 희망이라는 확신이 든다. ⊕

아이티 긴급구호 계좌 안내

- 후원 우리은행 454-005324-13-045
예금주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 문의 자원개발부 02-727-2267



영화배우 최은희 씨

장기기증 서약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홍보대사도 맡아

저의 생을 정리하면서, 뭔가 뜻 깊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던 중 임덕일 신부님께 안구 기증을 하고 싶단 말씀을 드리자 신부님께서 한마음한몸운동본부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영화배우 최은희(소화 데레사)씨가 지난 6월 14일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장기기증 홍보대사에 위촉됐다. 최은희씨는 이날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추기경 집무실에서 열린 홍보대사 위촉식에 앞서 직접 작성한 장기기증 서약을 전달했다.

“저의 생을 정리하면서, 뭔가 뜻 깊은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던 중 임덕일 신부님(서울대교구 푸르실로 전담)께 안구 기증을 하고 싶단 말씀을 드리자 신부님께서 한마음한몸운동본부를 추천해 주셨습니다”며 “처음에는 조용히 장기기증 서약만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로 하여금 더 많은 분들이 장기기증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되고, 장기기증 서약을 하는데 동기 부여가 된다면 더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는 신부님의 말씀을 듣고 ‘한마음한몸운동본



1. 영화배우 최은희(좌측) 씨가 정진석 추기경(우측)께 장기기증 서약서를 전달하고 있다.
2. 정진석 추기경과 임덕일 신부가 지켜보는 가운데 최은희 씨가 '장기기증 희망 신청서'에 서명하고 있다.
3.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장기기증 홍보대사 위촉 후 참석한 관계인사들과 기념촬영
4. 홍보대사 위촉 후 정진석 추기경께서 최은희 홍보대사에게 안수를 해 주고 있다.

부 장기기증 홍보대사'를 맡게 되었으며, 하느님의 도구가 되어 열심히 활동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정진석 추기경은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선종하시면서 안구기증을 하셨다는 소식으로 많은 사람이 장기기증을 하게 됐다. 최은희 씨가 장기기증 서약을 했다는 소식 역시 많은 분이 장기기증에 대한 생각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은희 씨의 홍보대사 위촉식에는 서울대교구 염수정 총대리 주교,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본부장 김용태 신부, 서울대교구 꾸르실료 전담 임덕일 신부,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사무국장 민경일 신부, 영화배우이자 최은희 씨의 조카인 장희진(글라리아) 씨 등이 함께했다.

창립 22주년을 맞이하는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1990년부터 장기기증 사업을 시작했으며 올해 6월 7일까지 본부를 통해 장기기증 신청을 희망한 사람은 8만 615명이다. 이는 국내 전체 장기기증 희망자의 10%를 넘는 수치이다. ⊕

● 장기기증 신청 및 장기이식대기자 후원문의 02-3789-3488



1

본부 백혈병·난치병 환자 지원사례

심장이 아픈

몽골아기 진궁 이야기

병실로 들어서서는 순간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일행을 먼저 맞이해 준다. 가녀린 그의 작은 손에는 아픔을 대변하듯 링거 주사바늘이 꽂혀있다. 주사가 아파서인가 아니면 수술을 위해 갓 옮긴 병실이 낯설어 그런 것일까... 간단한 검사에도 아기는 울음을 그칠 줄 모른다. 검사를 마치고 엄마 품에 안긴 아기는 이내 울음을 멈추고 방긋 웃는 얼굴로 본부 일행을 정식으로 반겨 준다.

한국에서 태어난 생후 5개월 된 몽골아기 진궁

출생 후부터 숨이 차고 우유를 잘 먹지 못해 동네 소아과를 찾은 진궁은 선천성심장병이라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종합병원으로 옮겨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심실중격결손증 진단을 받았다.

1. 진궁의 심장수술에 필요한 수술비를 지원하는 '지원증서' 전달식에 함께한 (사진 좌로부터) 가천의대길병원 서향순 사회사업실장, 본부 생명운동부 하 아순타 수녀, 진궁가족.
2. 엄마 알탕도야 씨의 품에 안겨 웃고있는 진궁.
3. 본부 백혈병 난치병동기 담당 하 아순타 수녀가 울고 있는 진궁을 달래고 있다.

십시일반(十匙一飯)이란 말이 있다. 열 손가락이 모여 밥 한 그릇이 된다는 뜻으로, 여러 사람이 조금씩 힘을 합하면 한 사람을 돕기 쉬움을 이르는 말이다. 하루 100원씩 모아 주신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사랑 나눔이 몽골아이 진궁에게 큰 희망의 빛이 되었다.

진궁은 2차 고혈압을 동반한 심실중격결손증으로 결손 크기가 커서 심장수술이 시급한 상황이었으나, 월 소득 100여만 원의 일용직 이주노동자인 진궁이의 부모로서는 1200만 원 이상의 치료비 마련이 어려워 심장수술은 엄두도 못 낼 형편이었다.

가천의대길병원 사회사업실로부터 진궁이의 어려운 처지를 연락받은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주변 지지체계가 없어 치료비 마련이 어려운 진궁이의 치유와 꿈을 위해 지난 5월31일 백혈병·난치병 환아돕기 기금으로 수술비 900만원을 지원하였고 다음 날, 병원으로부터 진궁이 심장수술을 무사히 잘 마치고 회복 중이라는 반가운 소식을 받았다.

어머니 알탕도야 씨는 또렷한 한국말로 “고맙습니다!” 라며, 몽골 전통의 상을 입은 예쁜 신랑신부 인형과 초콜릿을 본부에 전달하며 고마움을 대신했다.

십시일반(十匙一飯)이란 말이 있다. 열 손가락이 모여 밥 한 그릇이 된다는 뜻으로, 여러 사람이 조금씩 힘을 합하면 한 사람을 돕기 쉬움을 이르는 말이다. 하루 100원씩 모아 주신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사랑 나눔이 몽골아이 진궁에게 큰 희망의 빛이 되었다.⊕

백혈병·난치병 어린이 돕기

- 후원 우리은행 454-005324-13-044 예금주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 문의 02-774-3488



국제협력

아이티 지진피해 현장 방문 실시



국제협력부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아이티 지진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총 3차에 걸쳐 지원된 사업에 대한 점검 및 현지 카리타스 및 교구, 수도회 등의 잠재적 협력기관들과 향후 장기재건 사업에 관하여 심도 있고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본부는 앞으로 지진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고 힘들어 하는 아이티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아시아국제개발펠로우십 참여

국제협력부 박재출 간사는 6월 6일(일)부터 6월 13일(일) 한국개발연구원 (KDI)과 아시아재단 (The Asia Foundation)이 주최하는 아시아개발협력펠로우십 단기연수 프로그램에 선발되어 스리랑카 지역경제발전과 경제거버넌스에 대한 연수에 참여하였습니다.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
'단비'팀 몽골사업장 방문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지난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본부 지원사업장인 몽골 바양허셔와 바양고비에서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 '단비' 프로그램 촬영을 지원하였습니다. 김수로, 장혁, 김사랑, 김용만, 정형돈, 마르코 등 10여 명의 연예인들과 함께 아시아 최빈국이지만 아름다운 초원의 나라 '몽골'을 찾아가 도시빈민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을 건립하고 사막지역 유목민을 위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으로 추진된 몽골에서의 아름다운 사랑나눔은 7월 셋째 주부터 3~4회에 걸쳐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 '단비'를 통해 방영될 예정입니다.

생명운동

백혈병·난치병어린이지원사업

성명	병명	병원	진료비
진* (남, 5개월)	선천성심장병	가천의대길병원	900만원
김** (남, 만 9세)	두개골불합성조기유합증	신촌세브란스병원	900만원
MUN***** (남, 8개월)	선천성심기형	서울대병원	1,000만원
이** (여, 만 15세)	골육종	국립암센터	900만원
박** (여, 만 21세)	섬유육종	국립암센터	1000만원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가톨릭장기증전국네트워크
실무자 교육 실시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생명운동본부 산하 가톨릭장기증전국네트워크는 6월 10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발족 후 첫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전국 9개 교구의 장기기증 업무 실무담당자들이 참석한 이날 교육에서는 장기기증 입력 프로그램 교육에 이어 장기기증 업무 매뉴얼 공유, 그리고 향후 지원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습니다. 또한, 김수환 추기경 선종 1주기를 기해 사순시기에 펼쳐진 범국민 장기기증 캠페인 결과를 공유하고, 장기기증 홍보사업 프로그램 공모에 대한 설명도 이루어졌습니다.

청소년생명학교 개설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에서는 6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250여 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생명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주위 친구들이 자살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모습과, 도울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청소년생명학교는 하반기에도 학교 및 청소년단체의 신청을 받아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성고 총동창회, 본부와 장기기증캠페인 펼쳐

서울 동성고등학교 총동창회(회장 우기정)가 한마음한몸운동본부와 함께 장기 및 각막기증운동을 본격적으로 벌이기로 했습니다. 총동창회는 각막을 기증해 우리 사회에 큰 빛과 사랑을 남기고 떠난 김추기경을 본받고자 사랑의 유지계승에 나선 것입니다.

이미 지난 2월 6일 총동창회 신년하례식에서 장기기증운동 선포식을 가진 바있는 동성총동창회는 김수환 추기경 선종 1주기 행사로 추모음악제와 사진전을 개최했습니다. 이어 지난 5월 30일 “제21회 동성의 날”을 맞아 한마음한몸운동본부와 함께 공동으로 혜화동 동성고 운동장에서 열린 “동성의 날 한가족축제”에서 한마음한몸운동본부와 함께 행사에 참가한 동문과 재학생, 가족을 대상으로 장기기증운동을 벌였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전국에서 열리는 모든 동문행사서서 장기기증운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총동창회 우수용 사무총장은 “나눔의 장기기증을 통해 김 추기경님의 거룩한 뜻을 이어나가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함께 해주신 서울 동성고등학교 총동창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가톨릭 장기기증 전국 네트워크 사순 캠페인

사순시기를 맞아 가톨릭 장기기증 전국네트워크에서는 전국 각 교구 분당별로 실시하여 서울교구 222개 분당 및 전국 13개의 교구에서 장기기증캠페인을 하였습니다. 만 천여 명이 장기기증희망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적극 참여해 주신 모든 신부님과 신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대구 가톨릭 신학대학 학생회 아이티 성금 전달

대구가톨릭대학교(총장 소병욱 신부) 신학대학 학생회에서 아이티 성금 100만원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번 성금은 한 학기동안 모은 미사봉헌금 중 일부로 “도움이 절실한 아이티 지친 피해 이재민 구호를 위한 성금으로 쓰자”는 신학생들의 의견에 따라 전달해 온 것입니다. 대구가톨릭 신학대학 학생회에서는 매 학기마다 모은 봉헌금을 도움이 절실한 이웃들을 위해 2-3개 단체 및 개인을 선정해 전해오고 있습니다. 신학생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랑은 절망 속에 간절히 희망을 찾고 있는 아이티, 아이티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귀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살레시오 나눔의 집 청소년 용돈 아껴 아이티 성금 전달

“살레시오 나눔의 집” 청소년 47명이 사순기간 동안 용돈을 아껴 모은 1,076,690원을 아이티를 위해 기부해주셨습니다. “살레시오 나눔의 집”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청소년들이 올바른 시민과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도록 보살피며 생활하는 가정 공동체로 현재 서울과 경기 지역 7개의 살레시오 나눔의 집에서 60여 명의 청소년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살레시오 청소년들이 전해온 사랑이 있어 아이티는 희망을 꿈꿀 수 있습니다. 사랑의 나무를 심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청소년 여러분의 마음이 아이티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꾸준히 이어지는 아이티·칠레 긴급구호 성금

지난 4월 10일, 수원가톨릭대학교학생회재단이 한마음한몸운동본부로 찾아와 아이티와 칠레 지진이재민을 위한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습니다. 사순시기동안 전교생과 교수님이 모두 한마음으로 모아 아픔을 겪고 있는 아이티와 칠레 이재민들에게 마음의 위로가 되길 바란다면 큰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19일에는 반포성당청우회가 부활계란판매수익금 1,306,000원을, PBC-FM 명동연가팀이 기부물품 경매 모금액 60만원을, 서울성모병원 간호사회에서 3,555,000원을 아이티·칠레 긴급구호 성금으로 본부로 전달했습니다.

구의동성당 주일학교에서 보낸 따뜻한 사랑

지난 5월 27일 서울대교구 구의동성당(주임 박명근 신부) 종교동부 주일학교에서 부활 달걀을 판매한 수입금 100만 원을 헌미헌금의 달을 맞이하여 해외 청소년을 위해 기부해 주셨습니다. 적극 동참해주신 신부님과 주일학교 학생,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강봉사단 공정무역물건 판매수익금 기부

서강대학교 사회봉사센터 서강봉사단에서는 초콜릿과 커피판매 수익금 50만원을 아이티와 칠레에 기부하였습니다. 전해주시는 따뜻한 마음이 질병과 가난, 재해재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지구촌이 웃들에게 커다란 희망이 될 것입니다.

사랑의 휴대전화 경매



서울 개포초등학교에 다니는 국승연, 윤효정, 민규리, 정윤희(이상 5학년)양은 지난 5월 8일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방문해 아이티 어린이들을 위해 스마트폰을 기부하였습니다. 최근 영어 학원에서 주최한 '영어 UCC 대회'에서 부상으로 받은 휴대전화를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하던 끝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굶주리는 친구들을 위해 기부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어린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사랑의 휴대전화' 경매를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하며 판매수익금은 아이티 긴급구호에 사용됩니다.

생애첫기부

아기들의 '생애 첫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해 주시는 가족분들의 소중한 나눔에 감사드립니다.

아이티 긴급구호 지원

■ 전하윤 (2009.2.11생 父전진/母장선아), 15만원 (아이티 긴급구호 지원)

백혈병·난치병어린이 지원

- 박시은 글로리아 (2009.3.29생 父박주형/母이승희), 100만원 (백혈병·난치병 어린이 돕기 지원)
- 이효주 효주아네스 (2009. 6. 3 父이상훈/母임미화), 89,200원 (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지원)
- 박주영 (2009. 6. 9 父박재수/母김세진), 100만원 (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지원)
- 차세연 모니카 (2007. 8. 22 父차광호/母김정연), 100만원 (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지원)
- 차순규 이시돌 (2009. 4. 10 父차광호/母김정연), 100만원 (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지원)
- 김차오, 김승오 형제 500만원 (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지원)

3년 동안 모은 저금통 전달

■ 지OO (2005.4.27생 父지승환/母장미선), 325,470원 (지구촌 빈곤 아동 돕기 지원)

해피빈과 함께하는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디지털로 전하는 아날로그 사랑, 콩 모아 사랑나누기

이메일만 보냈을 뿐인데 기부를 할 수 있었어요



직접 돈을 내지 않아도 사회 공익단체에 기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이메일과 블로그 사용만으로도 기부 온정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금전적 기부가 아니라도 손쉽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이웃을 도울 수 있게 하는 해피빈은 포털사이트 NHN(네이버)와 (재)해피빈이 함께 운영하는 기부 포털입니다. 네이버 메일을 이용할 때 메일 하단에 콩메일로 쓰기에 체크하고 보내면 한 달에 최대 10개의 기부콩을 제공받을 수 있고, 네이버 메일을 사용하여 적립된 마일리지를 콩으로 전환해 원하는 공익단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해피빈의 기부콩은 1개당 100원이 기부되며 콩은 본인부담이 아니라 해피빈과 해피빈의 파트너 사들이 부담합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질문하기, 답변하기를 해도 즉시 콩 1개가 적립됩니다. 받은 콩은 콩저금통에 저금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공익단체에 기부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해피빈은 한번도 기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늘 마음에는 있지만 실천이 쉽지 않았던 사람들도 해피빈에서 주는 콩을 받아 누구나 쉽게 기부에 참여가 가능한 새로운 온라인 기부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피빈을 통해 기부해주신 소중한 콩은 도움이 필요한 곳을 지원하는데 쓰입니다.

•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해피로그 <http://happylog.naver.com/obos> • 해피빈 관련문의 한마음한몸운동본부 02-727-2267



생명, 포기하지 말고 지켜주세요

1599-



생명친구

www.생명친구.org
www.obos3079.org

• 자살예방센터 1599-3079(생명친구) • 상담시간 (월~토) 10시~21시30분
•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380-307979 / 예금주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한마음한몸 자살예방센터



22nd ANNIVERSARY

* 한마음한몸운동본부가 걸어온 지난 22년은 세상의 소외된 사람들을 마주 보며 사랑나눔을 실천해 온 22년이었습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 22살의 청년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립하신 성체성사의 정신에 따라
나눔을 실천하고 생명을 살리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故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설립하신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국제협력, 생명나눔, 국내사회복지 지원사업을 전개하며
생명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절취선을 따라 올려주세요



접는선
이 부분은 반으로 접으세요

보내는 사람

□ □ □ - □ □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0.3.9 ~ 2012.3.8
서울중앙우체국
승인4151호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서울시 중구 명동길 62(구.명동2가 1) 가톨릭회관 413호
tel 02.774.3488 fax 02.776.7879 www.obos.or.kr

1 0 0 - 8 0 9